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은 30일 대만과 결승진출을 놓고 4강에서 만난다.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패했던 단일팀은 설욕에 성공하면 은메달을 확보한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뉴스스

여자농구 단일팀 대만과 리턴매치

오늘 대만과 4강전...박지수 합류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AG)은 남북 체육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대회다. 전체 종목은 아니지만 단일팀을 구성해 처음 참가한 국제종합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해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메달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과 북은 카누, 조정, 여자농구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조정에서는 남자 무타포어와 에이트, 여자 경량급 더블스컬에 단일팀이 출전했으나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하지만 카누 여자 용선 250m에서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500m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남자 1000m에서도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좋은 흐름을 여자농구에서 이어받는다. 여자농구 단일팀은 대회 4강에 진출해 있다. 30일 낮 12시(한국시간) 대만을 상대로 결승 진출을 타진한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최소 은메달을 확보하게 된다.

여자농구 단일팀은 조별리그에서 대만과 이미 한 차례 대결을 펼쳐 연장 접전 끝에 85-87, 2점차로 패한 바 있다. 시종일관 팽팽한 대결을 펼쳤지만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연장전으로 승부를 이어간 끝에 경기를 내졌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시즌을 마친 193cm의 장신 센터 박지수(20·KB스타즈)가 합류해 골밑을 더 보강했다. 또한 단일팀은 경기를 치를수록 조직력에서 한결 나아진 경기를 선보이고 있다. 조별리그 당시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박지수의 몸 상태와 북측 선수들과의 호흡 등이 변수지만 대만이 버거운 상대는 아니다. 카누와 조정 단일팀의 일정은 끝났다. AG 남북 단일팀의 대미는 남과 북이 힘을 합친 여자농구 선수들이 책임진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KISS와 함께하는 AG | 남북 단일팀 성과와 향후 전략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해 화제를 모았던 카누 용선 남북 국가대표 선수단이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뉴스스

‘제2의 카누 용선’ 지속적 교류가 우선이다

남북 체육교류, 정치 환경에 좌우
지속적 교류·협력이 통일 앞당겨
NOC 통합 등 전담기구 마련 시급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AG)이 한창인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종합대회 역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의 아리랑이 울렸다. 25일 카누 종목 여자용선 200m 동메달에 이어 26일 여자용선 500m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카누 외에도 단일팀으로 나선 여자 농구대표팀도 AG 여정을 이어가면서 값진 열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카누 단일팀의 패거리는 특히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깬 결과이기에 기쁨이 배가된다. 축구, 농구처럼 두터운 팬 층을 보유한 종목이거나 태권도, 양궁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 효자종목으로 알려진 종목이 아닌 탓에 의미는 훨씬 크다.

AG 등 국제종합대회에서 남북이 단일팀을 이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0베이징AG 당시 남북단일팀 논의가 있었지만 아쉽게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당시 북측으로 하여금 남북 체육교류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북측의 태도 변화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긴장상태의 완화와 안보전략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음가지가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남측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우방국들과의 국제 정치외교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일례로 베이징AG 준비단계에서 대한체육회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 논의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담당자들이 동서독 단일팀의 경험을 가진 독일로 조사차 출장을 가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 그해 북측과 대화를 앞두고 있던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급진적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노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베이징AG에서 공동위원단을 구성해 남북 단일팀의 당위성을 한반도 전역과 아시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4차례에 걸친 남북 회담 끝에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출전시켜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북미 관계가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꾸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단일팀 구성은 한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내·외 정치적 환경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남북관계에 있어 스포츠는 한계가 있다는 자조적 분위기가 었다.

다행히 요즘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북핵 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시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국제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했고, 남북화합 분위기를 지지하는 기류가 조성돼 현재에 이르렀다.

AG 메달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한반도기를 휘날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할까. 학계 일각에서는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통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체육교류를 전담할 재원이나 기구가 부재하다보니 현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몇몇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체육단체가 나서면, 정치나 정책의 영향력을 덜 받고 민간중심의 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북 단일팀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다른 종목들이 자카르타-팔렘방AG 카누 용선의 사례와 같이 쉽게 단일팀을 이룰 수도, 또 성과를 낼 수도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리와 북측, 그리고 한반도기와 같이 세 개의 그림이 함께 메달테이블에 오르는 것이 당분간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느 분야에서도 하지 못한 효과적인 통일 준비학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남북 단일팀은 개별 종목단체의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핵심이다. 그래야 제2, 제3의 카누용선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를 남북통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책개발연구실 연구위원 조현주 박사

스포츠동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공동기획

단체전 석권...양궁 김파운드 '매력 속으로'

일반인도 쉽게 도전...긴장감 극복 매력 리커브 비헤 정확도 높아 실수는 치명적

강산 기자의 AG 스토리

대한민국은 양궁 강국이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기가 국제대회 우승보다 어렵다'는 말은 속설에서 정설로 바뀌었다. 이는 리커브와 컴파운드 두 종목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들에게 컴파운드 종목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중들이 흔히 말하는 '양궁'은 바로 리커브다. 컴파운드 활은 리커브와 달리 활

에 도르레가 달린 기계식이다. 아직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닌 터라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10년 뒤인 2028LA올림픽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2014인천아시아게임(AG) 2관왕이자 2018자카르타-팔렘방AG 양궁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 금메달을 이끈 최보민(34·정주시청)도 "10년 뒤 LA올림픽에 컴파운드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생겼다. 이번 AG에서는 남녀 단체전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들에게 '컴파운드 종목의 매력을 어필해달라'고 했다. 질문에 응답할 4명의 선수 모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남자대표팀 만행 최용희(34·현대제철)는 "컴파운드 활을 경험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조준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긴장된다. 그 긴장감을 스스로 극복하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밝혔다. 김중호(24·현대제철)도 "경기가 접전으로 흐르다 보면 그만큼 긴장되고 박진감도 넘친다"고 밝혔다. 홍성호는 "컴파운드는 리커브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기계적인 요소도 많다. 그래서 큰 실수 하나에 금방 흐름이 넘어간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보민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로 컴파운드의 매력을 설명했다. 덧붙여 "리커브와 견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 국내에 컴파운드 인구가 많지 않다. 도전하라. 환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posterboy@donga.com

나아름, 한국 역대 5번째 AG 4관왕 도전

내일 사이클 여자 매디슨 金 사냥

나아름(28·삼주시청)이 한국의 아시아게임(AG) 역사에 도전한다. 나아름은 2018자카르타-팔렘방AG에서 이미 금메달 세 개를 따냈다. 도로사이클 개인도로와 도로독주에서 왕좌에 오른 그는 28일 트랙사이클 여자 단체추발에서도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목이 무거울 법도 한데, 또 하나의 금메달 사냥을 준비하고 있다. 31일 김유리(31·삼양사)와 함께 여자 매디슨에 출전한다. 매디슨은 두 명이 교대로 달리는 포인트레이스다. 만일 매디슨에서도 왕좌에 오른다면 나아름은 한국의 AG 역사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

역대 단일 AG에서 한국 선수 한 명이 따낸 금메달은 최대 4개다. 4관왕 전설의



나아름

시작은 양궁 양창훈과 테니스 유진선이다. 이들은 홈에서 열린 1986서울 대회에서 각각 4관왕에 올랐다.

이후 잠잠하던 4관왕은 2010광저우 대회에서 24년 만에 다시 나왔다. 주인공은 볼링 류서연이다. 이어 2014인천 대회에서도 볼링 이나영이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나아름으로서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가 남은 셈이다.

29일까지 자카르타-팔렘방AG 최다 금메달리스트는 일본의 이케에 리카코(18)다. 이케에는 여자 접영 50m와 100m, 자유형 50m와 100m, 단체전인 계영 400m와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최다인 6관왕이다. 여자 선수가 단일 AG에서 금메달 여섯 개를 한 번에 따낸 사례는 이케에가 최초다.

남녀를 통틀어도 이케에보다 앞선 이는 1982뉴델리 대회 때 7관왕에 올랐던 사격 서길산(북한) 뿐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